



? 아프가니스탄 이야기

☆"~스탄"은
페르시아어로 땅이나
나라를 뜻하는데,

"~스탄" 명칭을
쓰는 국가는 카자흐스탄
등 8개국이다

☆독립을 요구하는
~스탄 지역도 중국의
신장 위구르를 비롯
15개나 된다.
이슬람 국가는
더 늘어날 수 있을까..

☆오늘은
아프가니스탄(약칭 아프간)
뒤집어 보기도

☆아프간의
면적은 남한의 6배,
인구는 4,000만 명으로

이슬람교 수니파가
대다수인 국가다

☆국민총생산의 70%는
마약 (양귀비)관련이며,
성성문화는 세계인의
많은 지탄을 받고있다

'뭐 이런 나라가 있나' 싶다

☆척박한 사막과
산악지형이 대부분인
아프간을,
열강들이 탐내는 이유는
세 가지다



첫째,
지정학적으로 최고의
위치다

중앙아시아의
한가운데로 예로부터
여행자 유목민 상인
군인들의 통로다

국경이 구)
소련 중국 파키스탄

이란 등으로 그야말로
유럽과 아시아의 주요
육상 연결 지점이다

둘째,
한 때 세계 최빈국
10개국에 포함될 정도로
가난한 나라다

적은 돈이나
작은 물품으로도
속국(경제 식민지화)이
가능할 것처럼
착각하기 쉽다

셋째,
반면 지하자원은 엄청나다
누구도 손을 안 댄
상태로 다양하며 풍부하게
남아있다

북극은 러시아 때문에,
남극은 조약 때문에
접근이 어려워
이제 자원이 남은 땅은
아프간뿐이다

그래서 아프간은
고통의 연속이다



☆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
아프간을 제대로
정복하지 못했고
정복해도 오래가지 못했다

☆산악지형 때문에
군사 통신이 잘 안 되는
세계 유일의 지역이다

첨단무기가
아무 쓸모가 없다
당연히 게릴라전이 승자다

☆몽골 대제국 당시에도
아프간은 실크로드의
중심이었다

☆~몽골이
이 땅을 직접 통치하면서
동서남북을 모두
장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

이 지역 관리의 한계가
결국은 몽골 쇠퇴의
단초가 된다.
아프간에서
처음 당한 국가다

☆1839년부터
영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
식민지 인도를 앞세워
아프간과 세 차례 전쟁을 했다

영국도 결국
1919년에 철수했고
아프간은 독립했다

대영제국의
확장세가 멈추기 시작한
시발점으로 체면을
구겼다



아프간에
당한 두 번 째 국가다

☆소련은
1980년부터 9년간
아프간과 전쟁했으나
막대한 경제적
피해만 입고 철수했다

소련이 붕괴,
해체되는 결정적 원인 중
하나가 되었다.

아프간에
세 번째 당한 국가다

☆미국은 9.11 테러 후
알카에다와 손잡은
아프간을 침공,
탈레반을 축출하고 친미
정부를 세웠다

20년 동안
인명피해는 물론,
1조
(일부에선 7조까지 추정)
달러 이상 어마무시한
전비를 썼다

아프간에
당한 네 번째 국가다

☆아프간의
저주? 는 진행 중이다

이번엔 중국 차례다

☆중국
아프간에 탈레반 공격
기지를 자국 경비로 건설,

이번엔 도망간
아프간의 (친미) 정부에
주었다



아프간에
이미 발을 담근 셈이다

☆아프간의 미군 철수는..

베트남 전쟁과는
전혀 다르다
미국이 아프간 바통을
중국에 넘기는 타이밍을
잡은 것 뿐이다

미국은 때가
되었다고 판단했다
겉으로야 당연히
불편한 척한다 선수들은
다 아는 내용이다

☆신장 위구르
독립전쟁을 탈레반이
돕거나 함께 싸우도록 하고
그 결과에 따라
중국 분열 가속화까지
노리는 전략이다

☆중국에서 가장 넓은
신장 위구르 자치구는
아프간의 탈레반 정권과
교감이 깊고

이슬람 수니파가
주류라서 같은 계열이다

☆신장 위구르는
독립 국가의 호칭으로
"동 투르 키스탄"이라고
대놓고 쓰고 있으며,

중국인이 아닌
터키와 이란(페르시아)
혼혈족임을 드러내고 있다



☆탈레반은
강력한 구심점이 있다

기존의 오랜
토착세력인 데다
집권 경험까지도 있다

☆특히 종교가 이슬람교다
일상이 거의 순교정신화
되어있다

이슬람과 정치가

일치되면 중세 십자군은
아무것도 아니다

☆이후 상황은
중국과 아프간과의 관계에
초점을 맞추고 보면 된다

필연적으로
두 나라는 전쟁을 할
수밖에 없다.

미국이
깔아놓은 판 위에서..

☆신장 위구르
무슬림과 탈레반의 연대를
막기 위한 크고 빨라진
중국의 액션이 우선 관전
포인트다

☆그나저나 미국에
빌붙어서 살던 아프간의
관료나 기득권층..

탈출도 어렵고
그간의 호의호식 댓가로
목숨을 내놓아야 할 판이니
세상이 공정한 건가?



♣아프간의 교훈
* 헛심 쓰지 말라
* 있을 때 잘하자
* 까불지 말고 겸손하자

☆여담
도쿄올림픽 MBC 중계에서
아프간 입장시
양귀비꽃 사진을 상징으로
보여줘 국화로 착각,
욕 돼지게 먹음.

아프간은 아편과
헤로인의 원료인 양귀비
재배면적이 전체 국토의
3분의 1이나 된다

출처: 송운 사랑방
(SongWoonArtHall)
원문보기 글쓴이: 곰배령



우리 벗님들~!
健康 조심하시고
親舊들 만나
茶 한잔 (소주 한잔) 나누시는
餘裕롭고 幸福한
나날 되세요~^

